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별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김현태 기자

+ -  

교계 | 입력 2021.10.13 17:43 | 수정 2021.10.13 17:55 | 호수 1605 | 댓글 0

10월13일 새벽녘 출발해 27km 전진...부곡 로얄관광호텔 도착
 공양지원팀 정성으로 식사 원만 해결..."순례단에 힘 더해 보람"



고요한 새벽이었다. 고요한 새벽이었다. 상쾌한 바람결에 간간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뿐, 하늘의 별들마저 구름 속에 숨어들어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다. 새벽이 내어준 자연의 도량에서 순례단은 화두와 염불, 주력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맑히며 말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0월13일 경남 창녕을 출발해 13일차 숙영지 부곡 로얄관광호텔에 닿았다.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지만, 간간이 구름 사이로 햇살이 방긋거리며 순례단을 맞이했다. 이른 새벽 숙영지를 떠난 순례단은 7km를 걸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6km를 행선해 아침공양 장소인 창녕 장마면사무소에 도착했다.

이주연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



"철해여! 그대 오늘사 지워지지 않는 41년의 비로소 적조에 쉬게 되 상처...10·27법난 추

날마다좋은날, 세계 각국 불교영화 지역상영...
 마곡사, 코로나 극복·국태민안 기원 '군왕대...
 용인 구만사, 방생법회 봉행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2021년 학술대회...
 한국참선지도자협회, 6기 명상대강좌 수강생...
 인천 용궁사, 10년 불사 원만 회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재 봉행
 해남 대흥사, 30회 초의문화제 개최

연재

< >

세심청심

생일과 기일



나의 발심수행

염불수행 전통표(53) - 상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8. 흥천사 무량수전에는 덕...



무진등

구효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37. 목신들의 계승 판단법





공양시간은 순례길에서 만나는 즐거움 중 하나다. 행선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채울 뿐 아니라 지친 몸을 잠시 기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하는 순례단의 일정에 맞춰 150여명에 달하는 삼시세끼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아침공양은 삶은 계란과 꿀, 치즈, 요구르트, 바나나 등 간편식을 제공하며, 점심과 저녁은 대부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공양지원팀장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은 “천리순례 일정이 확정된 후 지역의 도시락 업체를 직접 방문해 메뉴를 조정하고 최대한 따뜻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조율했다”며 “순례단이 도착하면 바로 공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떠난 뒷자리를 정리하는 게 공양지원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 01 조계종 비구 66·비구니 16명, 대종사 명사 품서
- 02 “지역사찰 미래, 문화 콘텐츠 개발 여부에 달렸다”
- 03 본사주지 스님들, “불교평화 정착려 의원 제명하라”
- 04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 “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5 기림사 전 주지 철해당 종광 스님 10월24일 원적
- 06 송영길 대표 “전통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타당...민주당 공식입장”
- 07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08 정청래, 이번엔 문화재관람료를 극장 관람료로 억지비유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정청래 의원 공개참회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장 팀장은 이어 “외부 공양물의 경우 소중한 삼보정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순례 중 소비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역의 노인정이나 복지관으로 회향하고 있다”며 “매일 순례단을 맞이하고 환송하면서 순례단이 순례를 이어가는데 힘을 보태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경찰 등에 천리순례 관련 정무를 담당하는 진행1팀장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도 가장 늦게 까지 남아 순례단이 머문 자리를 정리한다. 스님은 “순례단의 앞길을 열어주고 뒷길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특히 공양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삼보정재를 더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순례자들이 떠난 뒷자리는 깨끗하고 정돈되며 아름다워야 한다”며 “해서 늦게까지 남아 떠난 자리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미처 정리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더 살피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아름다운 순례길이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이날 27km를 더해 총 322km를 행선 정진했다.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까지는 이제 101km를 남겨뒀다.

부곡=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5호 / 2021년 10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계·축원으로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에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 ▶ [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씬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수행·전법 새 장 열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주)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O**